

할례를 통한 언약 전달

창세기 17:1-10, 골로새서 2:6-11

최정웅 목사님

금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라는 천명을 주셨다. 우리가 오직 복음의 비밀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것은 이 나라가 세계복음화를 위해 쓰임받을 것이나, 아니면 한 때 반쪽했던 나라로 끝날 것이나 하는 것과 크게 연관되어 있다. 복음 가진 중요한 사람들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후대 때문에 우리나라를 지키시도록,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반드시 전달해야 되겠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열 명이 없어서 멸망했다. 예루살렘은 예레미야 5:1에 보면, 의인 한 사람을 찾을 수 없어서 멸망한 것이다. 나라의 형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다. 역사가 이렇게 흘러갈 때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야기를 하면, '형, 그런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은 전도운동을 하는 이 나라를 버리지 않고, 전도자가 있는 이 나라를 지키실 거야' 하더라. 그래야 한다.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한다.

지난번에 우리는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언약 전달이 왜 중요한지, 거기에 왜 생을 걸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다. 그 후에 또 일어난 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 언약 전달에 실패하니가 기인은 에베에 실패할 뿐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는 동생 아벨을 죽였다. 범죄자가 된 것이다.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지 못하니가 창세기 6장에서는 네피림 시대가 오고 말았다. 반대로, 언약이 제대로 전달된 아벨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고, 언약의 계보를 전달하는 가문을 구성하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 당대에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전달받은 노아를 통해서, 네피림의 재앙을 막는 방주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언약 전달에 실패한 결과 올 수밖에 없는 재앙의 흐름을 막도록, 언약의 비밀을 가진 한 사람과 한 팀을 부르고 계셨다.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일어난 것이 바벨탑 운동이라는 저주의 흐름인데, 이것을 무너뜨리도록 하나님이 한 가문을 부르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본문의 아브라함 이야기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면서, 이것을 전달할 방법까지 알려주신 것이 오늘 본문이다. 우리가 어떻게 언약을 전달해야 할 것인지, 두 가지 말씀을 짧게 전하면서 은혜를 받기 원한다.

1. 언약의 내용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다.

(1) 언약의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복음이 있다는 것이다. 복음이 첫 번째 언약이다. 하나님은 은혜 속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다. 창세기 3장의 자기 중심,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이라는 흑암을 깨뜨리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자신의 주권 속에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복음을 받게 하셨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된 것이다. 아브라함의 선행, 열심, 노력, 공로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복음을 붙잡도록 해 주셨다. 그래서 바울도 고백하기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 정도 되면, '내가 이 정도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쓰셨다' 할 만 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올라 함을 얻은 것은 내 행위와 열심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은혜로 된 것이다. 창세기 3:15의 여자의 후손의 복음, 창세기 4장의 피 제사라는 복음, 창세기 6장의 방주라는 복음을 붙잡게 하시고, 그 실체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구원받는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신 것이다. 요한복음 8:56에는 보면,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라고 암시하는 구절이 나온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1:13에 보면, 이 사람들이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것들을 멀리서 보았다고 했다. 신약의 성도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모른다. 약속하신 메시아가 실제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삼일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해 주셨다. 그 사실을 이제는 보고 믿게 되었지 않다. 구약의 성도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고 멀리서 바라보면서 구원받았다. 어떤 신학자는 해석하기를, 요한복음 8:56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는 모든 미래를 보이신 것이다.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는 말씀대로 다 보여주시는 것이다' 하고 해석한다. 분명히 아브라함도 메시아 언약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다. 로마서 4:2-3에 보면, 아브라함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증명하고 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은혜로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받게 해 주셨다. 에베소서 2:8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했다. 선물은 아무리 비싼 것이라 해도 거저 받는 것이다. 반대로 주는 사람에게는 큰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자기 말 잘 듣는 부하에게 스위스 고급 시계를 하사해서 통치한다고 하더라. 어떤 것은 몇 천만 원 짜리라고 한다. 귀한 선물일수록 대

가를 많이 지불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으시고, 그의 피와 물을 다 쏟으셔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그가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셨다. 그리고 영생과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러나 이 선물은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이번에는 우리 집사람도 71세가 되었다. 생일을 만났는데, 교우들이 선물도 하고 했다고 한다. 내가 젊을 때 고생을 너무 많이 시켰기 때문에 될 선물할까 하다가 빨간 장미를 71송이를 모았다. 사 가지고 꽃다발을 만들어서 배달을 시켜서 보냈더니, "한 송이만 하지도 될 이렇게 많이." (웃음) 고맙다고 하더라. 50년 살았는데 한두 번 한 것이다. 이번엔 한 번 해 봤다. (웃음) 돈 많이 줬다. (웃음) 한 송이에 4천 원. 속으로는 '돈으로 주지' 그랬을지도 모른다. (웃음) 말로는 고맙다고 하더라. 남자들은 본 좀 받아라. (웃음) 우리나라 여자들처럼 그렇게 수고 많이 하는 여자들이 어디 있나. 평생 고생하고 수고한다. 제일 미안한 것이, 쓰레기를 대신 못 버려줘서 미안하다. 안 해봐서 할 줄을 잘 모른다. 요즘 남자들은 그러면 쫓겨난다. 요즘 아이들은 잘 하더라. 김요한 집사람도 보니까 아기를 쟁거투처럼 안고 온다. (웃음) 네 명이나 되니까 안 그러면 안 되지. 참 좋은 남편이구나 싶다. 여러분도 본 좀 받으라고 말하는 것이다. (웃음) 나이가 들어서 좋은 것은 이럴 때인 것 같다. 젊어서 이렇게 하라 하면 '너나 잘 해라' 하지만, 나이든 사람이 말하면 좀 듣는 척을 한다. 오늘은 시간이 좀 있는 건가, 여담이 많다. (웃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끝났다. 그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분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된 우리는, 이것을 언약으로 꼭 붙잡아야 한다. 복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언약으로 잡아야 한다.

(2) 두 번째는 무엇인가? 이 복음은 나를 살릴 뿐 아니라,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여러 민족을 살리게 된다는 것이다. 내가 전도자와 함께 세계를 다녀 보는데, 통역으로 하면 솔직히 시원찮다. 하고 싶은 말을 다 전할 수 없다. 저래서 저 사람들이 알아들을까 싶은데, 나중에 그들이 포럼하는 것을 보면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붙잡고 있더라. 너무 놀랐다. 우리말로 들을 수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가. 외국 사람들은 한국어를 배우려고 애를 쓰더라. 통역 말고 라이브로 들으려고 애를 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가족, 민족, 세계 사람을 살리라고 하는 언약이 그 속에 들어있음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약속하셨다.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다. 한국은 전 세계를 살리는 나라가 될 것이다. 오늘 본문 7절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까지 언약을 주시고, 그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신다.

시진핑이 지금 전도자들을 다 쫓아내고 있는데, 나는 걱정한다. '앞으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손보시면 큰일인데.' 13억을 살려야 하는데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막고 있으니, 불쌍히 여겨 달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 다른 것은 막더라도, 백화점 들어오지 마라, 돈 벌어가자 마라 하고 막더라도 어쩔 수 없었는데, 복음은 막으면 죽는다. 멸망당한다. 그보다 훨씬 큰 나라 바벨론, 로마, 애굽이 다 망했다. 정말 경고하고 싶다. 이것이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정말 큰 저주다. 사도행전 16:31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 믿지 않는 식구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한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 '어느 날 되겠지, 다 주님이 하신다는데' 하고 있으면 안 된다. 때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실지 모른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5절에는 뭐라고 하는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하셨다. 다민족 살리는 역사가 약속되었다. 이것은 언약이다. 만민이 구원을 받게 하는 한국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언약이다.

(3) 세 번째 언약이 본문 8절에 나온다. 하나님은 이것을 두고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했다. 영원한 언약이다. 복음과 전도를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현장에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빌립보서 4:19에,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며칠 전에는 정창호 집사람이 첫 번째 급여 받은 것을 통째로 들고 왔다. 어제는 새로 오신 전도사님이 첫 급여를 다 가지고 왔다. 피가 있다. 나중에 많이 받을 때 다 내려면 힘드니까. (웃음) 적게 받을 때 첫 급여를 다 드린 것이다. 그러면 남은 생애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비밀을 알아야 한다. 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청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애들아, 하나님이 너희 창고를 하늘 창고와 잇대어 주신다고 하는데 왜 모르느냐.' 나는 세 번 교회 옮길 때마다 첫 급여를 다 드렸는데, 지금까지 축복을 받는다. 다 털어서 드리는데 어디에서 계속 생기는지 모르겠다. 희한한 일이다. 아직도 십일조 안 하시는 분이 있는가. 그런 장로님은 사표를 내셔야 한다. 내 친구가 고민을 하더라. 장로님이 십일조를 안 한다고, "에이, 당장 잘라내어지." 왜 이렇게 말을 하는가? 내가 독한 사람인가? 십일조 안 하는 사람이 망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다. 어떤 목사님은 십일조 안 낸 성도들 심방을 다닌다. "안 하시려면 다른 교회 가세요. 저는 계 교인이 망하는 것, 저주받는 것은 못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무릎을 꿇고 회개한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 교인

들이 다 도망갈 것 같지만, 교회는 더 부흥되고 교인들이 다 부유해진다고 한다. 부산 서부교회 백영희 목사가님 목회를 할 때는, 학생 36명이 책가방까지 팔아서 헌금을 했다고 한다. 30년 후에 보니까, 부산 국제시장 상권과 유수의 건물이 다 그들의 것이었다고 한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으라. 돈 이야기를 내가 잘 안 한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거짓처럼 사는 것 같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짓처럼 살게 하지 않는다.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다. 빌립보서 4:19, “나의 필요를 채우시리라.”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해 보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 보라. 이것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장의 언약이다. 마태복음 6:33의 말씀은 무엇인가?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다 채워 주겠다는 것이다. 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안 사는가. 하나님은 다 책임지시겠다고 한다. 믿으시기 바란다. 이것을 언약으로 믿고 붙잡기를 정말 예수 이름으로 축복한다.

2. 언약을 붙잡고 전달할 방법

크게 두 번째다. 앞에서 세 가지 언약을 말씀드렸다. 이것을 어떻게 붙잡고 전달할 것인가? 하나님은 세 가지 방법을 알려 주셨다.

(1)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방법이 나왔다. 이름을 바꾸라는 것이다. 언약을 붙잡아야 한다. 5절에 보니까,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름 속에 언약을 심어 주셨다.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존귀한 아버지, 위대한 아버지’라는 뜻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다. 그렇게 바꾸셨다. 놀랍게도, 유대인도 기독교인도 저 무슬림들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한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란다. 개인 정도가 아니라 여러 민족, 여러 나라를 살리는 아버지가 된 것이다. 생각해 보면 웃기는 일이기도 하다. 100살이 다 되어 가는데 아들을 못 낳았다. 그런데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고 하니까, 사라는 웃었다. 아브라함도 피식 했다. 행복하고 좋아서 웃은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네’ 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분이시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반드시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이다. 그 아들과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살아나게 하겠다고 했다. 그렇지 않다. 이삭의 후손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복음과 전도, 선교를 이름 속에 새기도록 만들어 주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는 방법이다. 누가 자기를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기억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나는 만민의 아버지지.’ 이것이 각인되게 한 것이다.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언약을 붙잡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늘 외쳐야 하는 것은, 그렇게 스스로 고백하라는 말이다. 그래서 아내 사래도 사라고 이름을 바꾸었다. 만민의 어머니다. 손자 야곱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었다. 지금부터 당장 가서 이름 바꿔야 되겠다, 작명가 찾아가라 하는 말이 아니다. 언약이 자기 정체성이 되도록 만들라는 것이다. 언약이 우리의 정체성이 될 만큼 붙잡게 되시기를 축복한다.

(2) 두 번째 방법이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두고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것이다. 무슨 말인가? 아예 언약을 네 몸에도 새기라는 것이다. 지금의 세례와 같은 것인데, 남자아이에게만 했다. 난지 8일 만에 고추의 포피를 약간 잘라내는데, 어린 아이 때니까 아픈 줄도 모른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다. 아랍 사람들은 여자들까지 할례를 시키는데, 수억 명의 여자들이 이것 때문에 질병을 앓는다. 여기 여자분들은 한국에 태어난 것을 정말 감사해야 한다. 설문을 다 할 수가 없다. 온갖 질병을 앓고, 여성의 즐거움을 모르게 된다. 언약을 못 붙잡고 흉내만 내니까 저주가 되었다. 그래서 언약이 분명해야 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피 제사를 몸에도 새기도록 만든 것이다. 항상 기억하고 잊지 않도록 만들라는 말씀이다. 아주 각인을 시키되, 화장실 갈 때마다 알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히만과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일 때 바지를 벗겨서 할례를 받은 자는 다 죽이도록 한 것이다. 할례를 행하는 민족이 유대인 말고 별로 없다. 한국인이 많이 포경수술을 하는 것을 보고 우리 민족도 이스라엘 족속이다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 (웃음) 그러면 지금도 할례를 해야 하는가? ‘안상홍증인회 하나님의 교회’라는 자들은 구약의 절기를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할례부터 행해야 한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말하기를, 로마서 2:29에서, 이제 할례는 네 몸에 하지 말고 마음에 하라고 했다. 갈라디아서 6:15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를 영혼 속에 받는 것이다. ‘네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냐하면 네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다’ 하는, 그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제부터 언약을 마음에, 영혼에 새기는 각인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란다.

(3) 세 번째 방법이 나온다. 12절에, 이것을 자신 뿐 아니라 모든 가족, 모든 일꾼들에게 행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10절에는, 이것을 대대로 계속 행하라고 말씀하셨다. 왜 할례를 계속 하도록 전통을 만들었는가? 언약 전달을 시스템화하려는 것이다. 문화로 만들라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심, 전심, 지속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전달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위해서 훈련을 계속 받아야 한다. 장로님, 권사님 되고 나면 훈련을 안 받으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계속 이 흐름과 훈련을 받지 않으면 노화된다. 같이 갈 수 없게 된다. 나는 완전하다 해도 훈련에 참여해서 흐름을 타야 우리가 될 수 있다. 세계복음화의 흐름에 같이 갈 수 있게 된다. 이번에 50주년에 임직받을 분들과 이미 임직받은 분들은 훈련이라 하면 빛을 내서라도 가져야 한다. 시간을 쪼개서 가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다. 후대들을 이 훈련의 자리로 모아서 언약을 심어야 한다. 나는 세계를 다니면서 이 언약이 후대들에게 새겨지는 것을 볼 때 정말 놀랐다 생각이 든다. 우리는 만 명, 만 오천 명이 모여도 한 건의 사고도 없다. 이 광경을 보는 시설 관리자들이 다 놀라더라. 여러분, 주일학교 한 번 가 보셨는가. 보통은 목사님, 전도사님이 설교를 못 할 정도로 시끄럽다. 그런데 우리 캠프드들은 메시지 시작하면 귀족은듯이 조용하다. 빛을 내서라도 보내야지, 왜 안 보내나. 요즘 한 명씩만 낳으니까, 아이들이 공주처럼 되어서 세상이 뭔지를 모르고 인간관계를 못 한다. 소통이 안 된다. 그 저주를 심으면 안 된다. 그래서 거기 보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언약을 붙잡는지, 어떻게 필기를 하는지 다 배우게 해야 한다. 이것 안 보내는 것을 보면 나는 너무 화가 나고 혈압이 오른다. (웃음) 혈압 오르게 하지 말고 보내라. 정말이다. 얼마나 감사한가. ‘류목사님이 목회를 다 해주니까 우리는 너무 편하다’ 하고 이야기를 한다. 정은주 목사님은, ‘수고는 이 양반이 다 하고 우리는 누린다’ 한다. (웃음) 보내기만 하면 훈련은 본부에서 다 시켜주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른다. 이렇게 훈련을 다 시켜주는데 왜 안 보내는가. 여러분 자녀를 죽이는 곳이 아니다. 보내라. 어느 날 성장해 있는 아이를 보면서 놀라게 될 것이다.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시기 바란다. 할례는 개인이 언약을 붙잡는 방법이요,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방법이다. 후대의 마음과 몸에 언약이 완전히 전달되도록, 언약 전달의 시스템 속에 우리가 있음을 정말 감사하시기 바란다. 청년들이 이렇게 메모를 써서 나에게 보내주었다. “목사님, 복음을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받는 내 마음을 여러분이 짐작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그 선물을 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포기를 했는지 모른다. 장로님 일곱 분을 잃었다. 국회의원 장로님도 있었다. 교인 250명 이상을 잃었다. 절반을 잃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 것이다. 그 소중함을 어른들이 아셔야 한다. 진짜 훈련받으시기 바란다. 임직받은 분들은 이유 없이 훈련을 받으라. 그리고 기도하라. “하나님, 나같은 죄인을, 나같이 이 부족한 사람을 왜 부르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으면,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할 것이다.

말씀을 마치겠다. 한 마디로 말하면, 언약이 24시 되게 하라는 것이다. 언약을 이름에 넣고, 몸에도 새기고, 그 언약에서 24시 떠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다. 이 응답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되기를 축복한다. 그러면 이 축복이 언제 시작되는가? 이 언약을 누리는 주님과 나 사이의 시간에서부터 시작된다.

창세기 17:1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언제 완전해지는가? 하나님 앞에 행할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누릴 때 되는 것이다. “네 몸이 성전이다, 왜냐하면 네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이다.” 걸음만 두면 걷는다고 거룩한 게 아니고 완전한 게 아니다. 네가 네 속에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너는 성도다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릴 때, 내가 완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란다. 창세기 17:2에 보니까, 하나님은 ‘내 언약을 나와 네 사이에 두겠다’ 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시간을 만들라는 것이다. 기도시간 야닌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40일 집중 새벽기도를 하고 있는데, 너무 중요한 시간이다. 주님과 함께 새벽을 깨우시기 바란다. 소리를 내서 기도하시기 바란다. 이 언약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 언약을 믿는 가장 행복한 시간을 만드시기 바란다. 이것이 언약 24시의 시작이다. 불신앙을 무너뜨리는 믿음의 시간을 만드시기 바란다.

(1) 복음을 붙잡고 감사하는 시간을 만드시기 바란다.

(2)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

(3) 집중을 회복하는 시간,

(4) 나를 치유하고 살리는 시간을 만들라는 것이다.

(5) 여기에서 모든 삶의 균형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것이 다섯 가지 기도의 비밀이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이 행복을 찾아내는 시간을 만들어서, 언약 24시를 누리시기를 축복한다.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후대에게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을 살면서, 진실로 언약을 전달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신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붙잡을 뿐 아니라 우리 후대와 그 후대, 그 후대의 후대에게까지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민족의 복의 근원,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